

헤트남이

정수이야



편집자 - 김근우

THÁNG 12, NĂM 2016

Chủ nhật	Thứ 2	Thứ 3	Thứ 4	Thứ 5	Thứ 6	Thứ 7
				워크캠프 봉사자 OT 1 언어 교환 다솜 간사님 오신 날	중간 보고회 2 Y식구들과 식사 UTE	하은 / 근우 / 준호 면담 3 1군 투어
바다 면담 4	간사님 가신 날 워크캠프 시작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휴식 Linh Y에서 잡 19	20	21	22	Linh hanh hang 1군 투어 23	Linh네 가족과 식사 조카들이랑 투어 24
25	바다 아픈날 Linh 이랑 영화 26	하은&준호 hanh&J 만나러 갑 27	28	29	여자 Linh과 식사 30	Linh, Hanh, Hang 과 카운트다운 31

WORK CAMP

중간 격려

활동 시작

THÁNG 1, NĂM 2017

Chủ nhật	Thứ 2	Thứ 3	Thứ 4	Thứ 5	Thứ 6	Thứ 7
1 장보기 Linh Y에서 잠	2 장보기 Linh Y에서 잠	3 스마일 레스토랑과 이 별 미유네 가족과 카페	4 홍안유치원과 이별	5 언어교환 파트너와 이 별 투어	6 레딘친과 이별	7
8 교회와 이별 Sin간사님 졸업식 Linh과 쇼핑	9 UTE와 이별	10	11	12	13 TRAVEL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설날	24	25	26	27	28
29	30	31				

01. 중간 격려

02. WORK CAMP

03. 활동

04. 빈곤 퇴치

05. 우리는 요즘

06. 개인 에세이



Raonatti 16th
소문 간사님의
아띠들이
계 기다려요

Sinh nhật 28/11
của Đa Som
새이 축하해요
오른쪽



PART 1
중간 격려



예쁜!!!! 다솜 간사님이!!!! 오신다!!!!!! 우리는 신이 나서 간사님의 생일 케이크를 사서 직접 그 위에 글을 썼다. 그리고 환영할 준비를 마친 채 간사님을 놀래 키기 위해 공항에서 숨어있었다. 하지만 눈썰미 좋은 다솜 간사님에게 들켜버린 우리. 어쨌거나 너무나 반갑고 보고 싶은 얼굴이었다.



간사님과 함께 온 '나에게 쓴 편지'는 서로에게 다양한 감정으로 남았다.



4박 5일 내내 들떠있었다. 반가움, 설렘, 어쩌면 우리 얘기를 들어 줄 간사님이 오셨다는 것이 큰 힘이 됐나 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왔는지 자랑하고 싶어 하루 종일 얘기했던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좀 더 많은 곳들을 경험했더라면 더 좋은 곳을 소개시켜드렸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그 외에도 간사님과 함께한 맛있는 밥상,
그리고 각자가 가진 면담 시간은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다는 용기와 다짐으로 남았다.

중간 보고회

중간 보고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활동지에 대한 피드백 이외에 우리 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공유했다. 그리고 그 단점을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었다.

최근 찾았던 개인 활동, 그리고 활동지에서의 활동 역시 함께하는 활동이 많지 않아 팀으로서의 개념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는데 중간 보고회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었고 우리의 두 달 반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그렇게 간만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우리를 돌아보며 준비했던 중간 보고회는 생각보다 잘 마무리 됐다. 그리고 보고회가 끝나고 록 총장님과 다솜 간사님의 격려는 우리에게 따스한 힘이 되어주었다.





여태껏 라온아띠에는 총 16번의 중간평가가 있었겠으나
나에게는 겨우 1번의 중간평가만 있었다. 그래서 다른
중간평가와 비교는 못하겠으나 난 이번 중간평가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이 한 명만 왔다는 점이다. 기를 뺏기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면 얼추 맞을것 같다. 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한명 늘었다는게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입이 좀 뚫린 느낌.
형식적인 것을 형식적이지 않게 하는 것 내가 참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느정도 맘에 들었다. 중간평가 준비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뻔한 말로 마치겠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을 간사님께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간사님과 함께한 즐거운 식사시간을 또
다른 행복이었다. 또한 9월의 내가 썼던 편지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정말 빠짐없이 들떠 있었던 4박 5일이었다. 함께 먹는 음식도 정말 맛있었고, 함께 했던 시간들도 정말 즐겁고 좋았다. 뭐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지 내가 보고 느낀 베트남에 대해 심없이 떠들었고 얘기 하면 할 수록 즐거웠다. 그리고 간사님 재발견의 시간!!! 영어도 엄청 잘하시고 일어도 엄청 잘하시고 쿨내 풀풀 풍기시고,, 짧았던 10일쯤의 국내 훈련 동안 간사님과 개인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누기 힘들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얘기도 나누고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좋았다.

다만,,, 왜 간사님이 오셔야만, 중간 보고회가 있어야만 나를,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시간들을 돌아봤을까 싶다.

중간격려 때 다솜간사님께 전해 받은 한국에서 내가 적었던 편지 봉투에, ‘준호가 “나는 누나랑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다. 과연?’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대답을 적는 칸이 있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적을 수가 없었다. 왜냐면 앞으로 한 달이나 더 남았으니까! 그리고 편지를 읽으며 내가 얼마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지 알 수 있었다. 지금의 나에게 그때의 내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것도 바로 ‘관계’였기 때문이다.

아무튼 중간격려가 나에게 엄청 큰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과는 달리 덤덤하게 지나간 것 같다. 중간보고회를 전날 밤, 그리고 당일 아침까지 부랴부랴 준비하는 내 모습을 보며 ‘바뀐 게 하나도 없구나~’ 싶다가도 또 어딘가는 바뀐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중간평가가 끝났지만 아직도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다솜간사님께서 오셔서 솔직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읽고 싶었던 시집도 받고,,, 간사님과 함께 홍안유치원에 못 간 것은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걱정과 달리 편하고 좋았다.



PART 2

WORK CAMP



A young girl with dark hair is smiling slightly, looking towards the camera. She is wearing a white school uniform shirt with a dark blue collar and dark blue suspenders. On her head is a large, wide-brimmed hat with a vibrant floral pattern in shades of red, pink, and green. The background is a soft-focus outdoor scene with green foliage and a blurred building. On the left side of the image, there is a vertical list of five items, each in a black rectangular box. A thin white line connects the top of the first box to the text '주요 스케줄' on the left.

주요 스케줄

01 CONSTRUCTION

02 TEACHING

03 SPORTS CARNIVAL

04 MEMORIES

05 이별

Chủ nhật	Thứ 2	Thứ 3	Thứ 4	Thứ 5	Thứ 6	Thứ 7
				1	2	3
4	5 만남 전쟁박물관 OT	6	7	8	9 SPORTS CARNIVAL	10
11 마을 방문 메콩델타 투어	12	13	14	15 SPORTS CARNIVAL	16 COMPLEMENT CEREMONY	17 구찌 터널 호치민 도착 1군 투어
18 이별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워크캠프란?

워크캠프는 28명의 SMU(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와 베트남 YMCA가 함께 주관하는 프로젝트이며 SMU 학생 28명과 베트남 봉사자 4명 그리고 우리 라온아띠 4명 이렇게 총 36명이 함께한다.

2주간의 활동 동안 총 4팀으로 나뉘어 활동을 진행하며 각 팀마다 베트남 봉사자와 우리 라온아띠가 한 명씩 들어간다. 전체 일정은 크게 수업, 공사, 교류와 문화체험으로 이루어져있다. 평일에는 수업과 공사를 하며 두 팀이 수업 나머지 두 팀이 공사를 맡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하루 총 4시간 동안 활동을 한다.

마을을 방문하고 그 곳에서 베트남 요리도 배워보며, 메콩델타 투어와 구찌 터널 체험 등의 시간도 있다.



5달 동안 요일별 활동과 2주간의 워크캠프가 베트남 라온아띠의 일정이다.

요일별 활동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베짱이에게 이 2주는 어땠을까?

베트남팀 리더 Hanh과
싱가폴 각 팀의 리더 4명

베트남 봉사자

라운아띠 역시 베트남 봉사자로서 워크캠프에 참여했다. 싱가포르 학생들과 베트남 아이들의 소통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외 워크캠프 일정 중 봉사자로서 필요한 곳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한 외에 3명의 봉사자들은 서류와 면접을 통과한 엘리트들이다. 영어를 사용하는 싱가포르 학생들과의 워크캠프이다 보니 영어를 잘한다. 다들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다.



파트너와 역할

준호 / 비엠헥

인원 수 파악



하은 / 룬

워크캠프가 끝나고 만들

영상, 사진 담당



바다 / 안

버스 기사 아저씨와 연락 담당



근우 / 한

리더와 리더 보조

파트너가 소개하는

베트남 봉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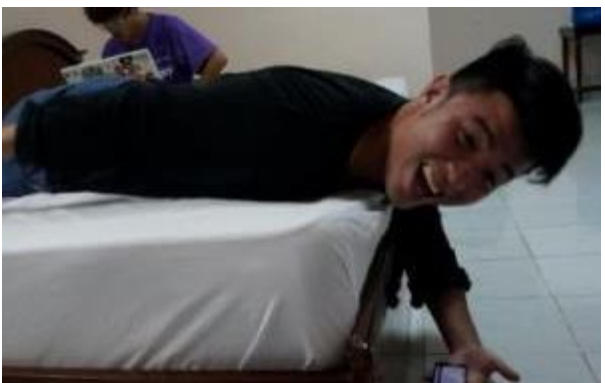
바다의 파트너 안

안그래도 작은 몸이 한없이 더 접혀질 수 있는 고난이도 요가 기술의 소유자이자 당황스러운 순간엔 하염없이 한국말로 ‘어떻게~~~’를 외쳐대는 조금은 독특한 사람. 하지만 일을 할 때는 지금 어떤지, 기분은 괜찮은지 챙겨주는 따뜻한 친구.

준호의 파트너 비엠허

우리 한 간사님의 동생 비엠허! 이 친구가 어떤지 자세히 열거하고 싶지만 지면 관계상 “어렸을 때부터 언니한테 무지막지하게 혼났을 것 같다”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다. 가끔 보면 어 저럴 수 있을까 싶지만 저럴 수 있다. 사실 세상을 두어번 미리 살아본 진정한 인생 고수같다.





하은이의 파트너 **른**

내 파트너 '른'은 차가운 첫인상과 달리 정말 다정 다감한 친구이다. 내가 본 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상대방의 기분을 헤어릴 줄 아는 공감왕이고,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이야기 할 줄 아는 소통왕이고, 나서거나 오버하지 않고 묵묵히 할 일을 해내는 진정한 굿보이이다. 이렇게 멋있는 모습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끔은 빈틈을 보이기도 해서 더 매력적인 사람이다. 무엇보다 우리 른은 우리가 새로운 코디네이터라고 칭할 만큼 우리에게 좋은 친구이다!

근우의 파트너 **미한**

우리 한은 정말 편안한 친구이다. 처음 만났을 때 부터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려 최선을 다하고 또 정도 엄청 많은 친구다. 내가 만난 한은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 관계에서 더 해주지 못해 화를 내고 슬퍼하는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친구다. 누구든 미한 옆이라면 마음이 편안해질 정도로 편안한 미소를 지녔고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가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진심 어린 모습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뭐니뭐니해도 한이 우리의 코디네이터가 된 것은 라온아띠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인 것 같다.



다간..... 안녕히 가세요...

간사님을 배웅하고 난 후 싱가포르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에서 기다렸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다가오는 28명의 SMU 티셔츠를 입은 대학생들. 그때가 그들과 우리의 첫 만남이었다.



싱가폴 사람들과 만나자마자 전쟁기념관에 갔다. 어떠한 소개도 없이 바로 갔기 때문에 살짝 어색하긴 했지만 그런 풋풋함도 산뜻했다. 이후 Y로 이동해서 점심을 먹은 후 전체 워크캠프에 대한 OT를 진행했다.

롭 총장님의 말씀 이후 비엠헥이 베트남에 대해 소개를 하고 준호는 베트남에 3개월 동안 라온아띠로서 살고 난 후 느낀 베트남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었다.

한은 베트남 YMCA에 대해 소개를 하고 나서 워크캠프에 대한 일정, 주의사항 등을 전달한 후 근우의 성공적인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을 마무리로 우리는 벤째로 출발했다.



활동지 벤째

활동을 진행하게 될 벤째는 아니, 적어도 우리가 활동한 학교 근처는 시골이었다. 이런걸 두고 시골이라 하는 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살던 호찌민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벤째는 코코넛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 근처 사는 사람들의 주요 수입이 코코넛이라 코코넛 나무가 정말 많다. 코코넛 나무 밖에 없다고 하는게 맞을 정도로 많다. 학교 앞 아스팔트길을 조금만 벗어나면 나오는 갈색 강과 울퉁불퉁한 흙길을 보면 조금은 정글 같기도 했다.

우리는 이 벤째에서 2주 동안 워크캠프를 했다.



A blue metal door with a handle and a lock, set against a dark background. The door has a rectangular handle and a lock mechanism. The background is dark and textured.

CONSTRUCTION

WORK CAMP



학교에서 공사장까지는 20분 쯤 걸어야 한다. 길게 느껴질 법 한데 이내 주변 풍경에 취해 어느새 공사장에 도착해버리곤 한다.

오는 길 만큼이나 공사장은 정말 아름답다. 지어지고 있는 학교 앞 넓은 잔디밭과 양 옆으로 높게 뻗어있는 야자수는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것이 신기한지 구경하러 오는 아이들도 이내 우리를 잊고 이곳에서 신나게 뛰어논다.



수업을 하는 학교와 같은 학교인데 기존의 학교가 충분하지 않아 이 곳에 하나 더 만들고 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건물은 지어져 있었지만 교실에 타일이 깔리기 전이라 흙바닥인데다 여러 공사 잔해들이 많았고 주변에 자갈도 많았다.



베트남 봉사자가 현지 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다 함께 일을 한다.

이곳에서의 우리 역할은
페인트칠, 지저분한 **벽토 제거** 그리고
마당 만들기다.



리더들은 때로는 일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안전을 위해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다친 친구,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관리하기도 한다. 마당 만드는 작업이 고되다 보니 마당에서 작업하는 친구들을 시간에 맞게 바꿔주기도 하고 물 마시며 쉬는 시간을 만들어 다 같이 쉬게끔 한다. 처음에는 'Water break!!' 라고 외치는 시간이 지나치게 잦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쉬지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내 더 힘을 얻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01. 페인트칠



페인트칠 할 부분은 모든 벽, 창틀 그리고 문이다. 이미 페인트칠이 어느정도 되어 있었지만 좀 더 색을 진하게 하기 위해 덧칠했다.

누군가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되기도 했고, 옆 친구와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눌 수도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벽과 창틀은 사다리 같은 도구가 따로 없어 키가 되는 대로 알아서 칠했지만 문만큼은 높더라도 다 칠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다리 대신 책상에 올라가서 페인트칠을 하는데 위험하다는 판단에 한 명이 뒤에서 받쳐 사고를 방지했다.

#02. 벽토 제거



생각보다 넓고 먼지도 많아 작업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른 일에 비해 크게 위험하지는 않아 때로는 같이 장난도 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타일을 까는 일은 기술이 필요해 아저씨들께서 하셨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생긴 타일 사이사이에 벽토들, 타일 위의 흙먼지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

벽토들을 다 긁어낸 후 빗자루로 쓸어내고, 타일 위의 먼지를 깨끗이 씻은 천으로 닦아냈다.



#03. 마당 만들기

싱가폴 군대를 방불케 하는 공사장;;



작업 ①

지어진 학교 앞은 흙더미가 많았다. 그리고 흙의 높이도 많이 높아 계단을 덮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계단 높이로 흙을 제거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던 계단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가 되기까지 정말 힘들었다.



망치로 깰 때 파편이 되게 날카로워서 안경을 낀 사람이 마스크를 무조건 쓰고 망치로 깨는 작업을 했다.



작업 ②

최종적으로 흙바닥 위에 시멘트를 부어 마당을 만드는 것인데 시멘트를 보다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흙 위에 벽돌을 깔고 망치로 깨부수어 그 위에 시멘트를 붓는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벽돌을 나르고 망치로 깨부수기!!!!





피드백

- 안전에 신경을 쓰고, 지치지 않도록 중간중간 다 함께 쉬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았다.
- 공사담당자와 선생님 그리고 싱가포르 리더와 베트남 봉사자의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활동에 차질이 생겼던 점이 아쉽다.
- 긴 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는 등 복장에 대한 공지가 워크캠프 가기 전에 되지 않아서 아쉽다.
- 몸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티칭과 컨스트럭션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비가 와서 활동을 하지 못할 때, 시간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 컨스트럭션을 할 때 스피커를 준비해서 음악을 틀고 한 것이 좋았다.



준호 소감

아침에 졸린 눈을 꿈쩍이다 버스에서 내려보면 Teaching site에 서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곳에서 Construction site로 가려면 양 옆으로 코코넛 나무가 우거진 정글길을 20분정도 걸어가야 한다. 직선이지만 꼬불꼬불한 길을 걷고 있다 보면 옆에 드문드문 집들이 보이고 그보다 훨씬 더 낮은 빈도로 슈퍼, 오토바이 수리점 등이 보이기도 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요시 하는 싱가포르 사람들은(2주내내 안전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했다.) 좁은 도로 때문에 오른쪽으로 붙어 한 줄로 가라고 했다. 그래서 덕분에 한명은 등을 보고 한명은 허공을 보며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둘이서 의자에 나란히 걸터앉아 아무것도 응시하지 않고 얘기만 할 수 있는 어떤 편안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아무튼 Construction site에 도착했다 치자.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Construction site는 Teaching site와 같은 학교인데 다른 캠퍼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그 두번째 캠퍼스를 우리가 짓고있는 거고. 기존 노동자분들이 우리 베트남 봉사팀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베트남 봉사팀이 우리들에게 영어로 통역을 해 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할 일을 묵묵히, 때로는 얘기를 덧붙여가며 열심히 일했다. 2주 내내 학교 앞 마당을 짓는 일, 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바닥에 블래스터(?)를 했다. 그러니까 단순노동!! 마음이 너무 편안했다. 에이 그냥 나도 나중에 단순노동을 내 일자리로 가져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벽돌을 나른다. 부순다. 페인트를 칠한다. 블래스터를 한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과학기술로 저 일들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수도 있을 것 같다.





느낌이 좋았다. 내가 행한 일들로 무언가가 쌓이는 느낌이.
그리고 내가 죽어도 저 학교는 남아있을 것이다.(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보다 수가 훨씬 적은 근로자 분들이 더 적은
시간에 더 대단한 일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는 쓸모없음에
대한 서러움에 면역이 되어있어서 그럭저럭 이냥 그럭저럭.
아무튼 나도 내 집을 내가 직접 짓고 싶다던가 시골에 내려와
학교를 짓고 싶다는 생각에까지 다다른걸 보면 조준호는
컨스트럭션에 나름대로 감명을 받은 것 같다.



하은 소감

첫날에는 컨스트럭션 활동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뭐게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단순한 일을 계속 하다 보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 걸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다. 그런데 싱가포르 친구들과 조금씩 친해지면서 컨스트럭션 활동을 할 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서로 격려의 눈빛을 보내기도 하는 등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은 사라졌다. 오히려 정해진, 단순한 일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다. 아니 그게 자연스럽게 되었다.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처음에는 일도 별로 안 했는데 자꾸만 쉬라고 해서 “뭐지? 왜그러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나는 힘들어 지쳤을 때 비로소 쉬를 가지는 방식을 갖고 있었던 생각이 들었고, 지치기 전에 지치지 않기 위해 쉬를 가지는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싱가폴 친구들이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책상에 올라가서 페인트 칠을 하는데, 한 친구가 내가 넘어지면 잡아주려고 내 뒤에서 나를 받쳐주고 있었다.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고 이게 팀워크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 놓는 모습이 배울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다 소감



생애 처음으로 공사 일을 해보았다. 삽질도 해보고 플라스터라는 생소한 과정도 함께 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의 체력이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쉽게 잘 지치는 사람인지 몰랐다. 한 간사님과의 나눔 시간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말했더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했다. 우리 팀이 삽질을 하고 있을 때 몰래 빠져나와 타일을 옮기거나 마룻바닥을 쓸었다. 그건 조금 미안한 일이기도 했지만 2주간 오래갈 수 있는 체력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의 체력이 방전되었다. 사람들과 더 많이 웃고, 떠들고 즐겁고 싶으면서도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는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내다보았고, 호텔에서는 모두가 모여 놀고 있는 방을 떠나 내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혼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것 역시 외로운 일이었다. 혼자 있는 방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함께 하고 싶었지만 다음 날 함께 즐겁기 위해서는 혼자 있어야 했다. 워크캠프가 끝나고 나는 체력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몸과 마음의 체력 모두 오래오래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다.

고민: 날 보러 자꾸 공사장 안으로 들어오는 꼬마들. 위험하니까 나중에 놀자고 말해도 다시 돌아온다.

근우 소감



공사 가는 길은 참 예쁘다. 2주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 밤마다 싱가포르 친구들이랑, 우리 베트남 봉사자팀들이랑 시간을 보내느라 늦게 자고 아침마다 힘들어하는데 처진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공사하러 가다 보면 피곤하다는 생각은 어느새 풍경에 눈길을 뺏겨 싹 잊어버리곤 한다.

그래서 매번 가는 길인데도 카메라를 꺼내 연신 셔터를 눌러대기 일쑤였다.

기존에 수업을 하던 학교는 운동장도 없고 그마저도 시멘트 바닥이었다. 그 곳에서 공놀이를 하고 뛰어놀다 보니 아이들의 체육복은 무릎이 터져있기가 허다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공사를 맡은 학교 앞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처음 도착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을 들었을 때 과연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다. 더 하고 싶고 더 할 수 있는데 자꾸 물 마시러 쉬라 그러고 바꾸라고 그래서 이래도 다 할 수 있나 싶었는데 만약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쉬고 했으면 금새 지쳤을 것 같다. 그리고 정말 2주 만에 다 끝냈다. 또 아무래도 싱가포르 학생들의 워크캠프에 우리는 봉사자로 참여한 것이다 보니 수업에서는 보조인데 이 곳 만큼은 나도 메인이라는 생각에 참 좋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다.



TEACHING

WORK CAMP



우리는 싱가포르 친구들의 워크캠프에 봉사자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수업의 메인 선생님은 싱가포르 친구들이었다.



한 명의 메인 선생님과 보조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이들의 옆에서 도움을 줬다.





색깔, 소망, 월, 동물, 시간 등에 대한 영어를 2개의 팀이 각각 다른 교실에 들어가서 가르쳤고, 우리는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싱가포르 친구들과 아이들의 소통을 도와주기도 했다.



한 번은 싱가포르 친구들이 우리도 수업을 해 보는 것이 어떻냐고 당일 제안을 했다. 하지만 우리와 수업에 대한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메인 선생님께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많았다. 그래서 대신 메인 선생님의 보조 선생님께서 수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야외에서 수업을 하기도 했고 수업이 일정보다 빨리 끝났을 경우에는 다 같이 나가서 함께 뛰어놀기도 했다. 밖에서 뛰어놀 때도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준비해서 소외되는 아이들 없이 즐겁게 놀 수 있었다.



피드백

- 수업 계획을 수업 전에 베트남 봉사자들과 미리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 수업 중 즉흥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들이 많아서 체계가 없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유동성을 배울 수 있었다.
- 수업이 다 끝나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를 해서 좋았다.
- 놀 때 못 어울리는 아이들을 예민하게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다.
- 수업 중 봉사자들끼리 역할 분담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하은 소감

솔직히 티칭활동에서 내가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어눌한 내 베트남어를 알아들어주고 또 종알종알 대답해주어서 고맙고, 뿌듯했다.





싱가폴 친구들이 준비한 수업을 보며, 하나의 주제로 활동들이 모두 연계되어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첫날 갑자기 오전에 수업을 들어갔던 반을 오후에 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나 같았으면, 불평하고 화부터 났을 텐데, 싱가포르 친구들은 이미 벌어진 그 상황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싱가포르 친구들에게 배울 점이라고 생각이 든 점이 “바로 피드백 하고, 바로 적용해서 바꾸는 것”이다. 오전 수업 후에 피드백을 해서 오후 수업을 보완하는 것이다. 나는 무언가를 못하고 나면 후회하고 아쉬워하기 바빴는데, 그 시간에 그 아쉬운 것을 짚어보고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바뀌야 겠다고, 아쉬워 할 시간에 바꾸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 소감

사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지식의 빈부격차였다. 내가 이 애기들 나이때 학교에서 무얼 배웠나 생각해보면 두둥.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 저런거 몰라도 잘 살 수 있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더 알기 위해 하는 교육은 사실 이제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 (이건 이 학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전체적인 교육제도에 대한 내 생각?) 하지만 가장 커다란 생각은 이 마을에 이 학교에 이 아이들과 대화하며 부대낄 수 있었던 추억에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다.



바다 소감

어눌한 베트남어로 차근차근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SMU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의 처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어색하고 조금은 진지했던 날들. 그 처음과 지금까지를 그들을 바라보며 돌아볼 수 있었다.



한은 무서운 얼굴로 이런 이야길 하곤 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지 말라고, 잘 관찰해서 스스로 찾아내라고. 티칭은 그런 관찰력이 필요한 시간이었다. 워크캠프에 오기 전, 한은 티칭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조교사 역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한 반에 들어가는 보조교사의 수는 거의 나를 포함해 다섯 명이 훨씬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한의 이야길 떠올리며 누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잘 관찰해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나는 관찰력이 굉장히 쓸모 있는 능력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서로의 고민과 짐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진다면
어쩌면 세상 모든 일이 서로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닐까. 내가 그동안 주위 사람을 향한 시력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새삼 반성하게 되었다.

근우 소감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언제나 즐겁다.



SPORTS CARNIVAL

WORK CAMP





1주일에 한 번 스포츠 카니발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축제

우리의 역할

첫번째 주 우리의 역할은 사진과 동영상을 찍기다. 각 게임 장소를 돌아다니며 카메라로 기록을 했고 때로는 싱가포르 친구들과 아이들의 소통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두번째 주에는 아픈 싱가포르 친구들이 많아 준비된 게임을 진행하기에 사람이 부족해 우리도 진행자로 함께 참여했다.

1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는 팀에서 카니발 진행을 맡았다. 총 6~7개의 게임이 한 번에 진행되며 각 반마다 각기 다른 게임을 참여하다가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다음 게임 장소로 이동한다.



얼음땡

술래가 잡은 아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얼음이 되고 다른 아이가 터치해 줘야만 얼음이 풀린다. 다른 아이들이 얼음이 되고 싶어 결국 술래가 쫓기는 상황이 만들어 지기도,,,



의자 앉기

노래에 맞춰 걸으며 진행자의 요구에 따라 춤을 추기도 하고 쏘그려 걸기도 하다가 노래가 끝이 나면 의자에 앉아야 한다. 의자 수가 사람 수보다 적기 때문에 미처 앉지 못한 아이가 탈락하는 게임이다. 게임하는 아이들은 정말 즐거워 했지만 탈락한 아이들은 할 것이 없어 아쉬웠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비슷한 게임

차이가 있다면 술래가 원할 때 뒤돌아보면 된다. 하루 종일 앞만 보는 친구부터, 뒤만 보는 친구, 앞은 아주 잠깐만 보는 친구, 몰래 살금살금 계속 움직이는 친구 등 게임을 즐기는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 때문에 정말 많이 웃었다. 하지만 많이 움직인 아이들을 확실하게 뒤로 보내지 않아 게임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꼬리잡기

한 명이 술래가 되어 술래는 꼬리를 잡고 팀의 맨 앞 사람은 술래를 꼬리까지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잘 놀았던 게임 중 하나.



축구

학교 뒷편 공터에서 축구를 했다. 하지만 바닥이 고르지 못해 걸려 넘어지고 다치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충분한 공간도 아니었기에 결국 축구 대신 한 명 한 명 페널드킥을 차기로 했다.



Poison ball

술래가 된 아이는 등글게 앉은 아이들 가운데서 공을 피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공을 굴려 술래를 맞추는 게임. 맞춘 아이는 술래와 자리를 바꾸고 그 아이가 술래가 된다.

이인삼각

봉사자가 반환점을 맡아 반환점이 도망다니기도 하고
어려운 곳에 가기도 하는 바람에 재미있는 상황이 정
말 많았다.



신엔 반환점



풍선 안떨어뜨리기

처음 규칙으로는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규칙을 바꿔가며 게임을
진행했다.

첫번째 : 다 같이 뛰어놀면서 게임

두번째 : 남자끼리, 여자끼리

세번째 : 두 줄로 서서 풍선을 튕겨가며
한 명 한 명 차례로 전달

네번째 : 원을 만들어 진행자가
고루 풍선을 튕겨준다.

➡ 남자 아이들에 유리

➡ 키가 큰 아이들에 유리

➡ 재미가 없음

➡ 모두 즐길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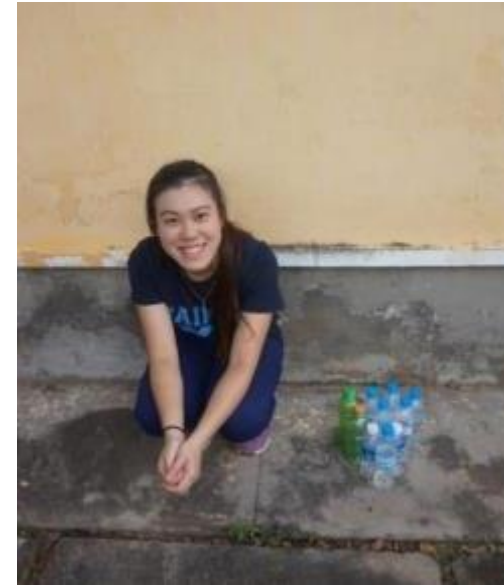
유연하게 잘 진행한
하은이와 제레미



베트남의 제기차기 đá cầu



공기놀이



볼링



피드백



- 스포츠 카니발도 수업의 일환이라는 것이 아이들 혹은 학부모님들에게 미리 공지가 되면 좋을 것 같다.
- 게임에서 탈락해서 할 것이 없는 아이들을 관리 할 사람이나 방법이 필요한 것 같다.
- 게임 규칙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그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 좋을 것 같다.
- 즐겁게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
- 싱가포르가 구급상자를 들고 다니며 다친 아이들을 바로바로 치료해 주는 점이 좋았다.
- 부스는 여러 개인데 베트남 봉사자는 두 명이라서, 통역을 해 줄 베트남 봉사자들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 처음에 우리의 역할이 사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쉬웠다.
- 스포츠 카니발에 대한 참여가 특정 팀원들에게만 이루어져서 아쉬움이 남는다.

하은 소감



처음 게임을 한 날에는 내 역할이 ‘사진과 동영상 찍기’어서 솔직히 걸도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게임을 한 날에는 나도 한 명의 진행자로 함께해서 즐거웠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 주요 역할이 사진과 동영상 찍기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만 얼마일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해도 되는 것인데, 내가 나 스스로 그것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맡은 코너는 풍선 발리볼이었는데, 아이들에게 기회를 최대한 공정하게 주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방식을 바꿔가며 진행했던 것이 좋았던 것 같다.

근우 소감



내가 어릴 때는 항상 밖에 있었던 것 같다. 항상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저녁 먹을 때 쯤 되면 어머니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집에 들어가곤 했다. 그리고 그랬던 내 추억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이번 스포츠 카니발을 통해 나도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오랜 만에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고 정말 별거 없는 게임 인데도 몰입에서 즐기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소소한 재미를 놓치고 살았지 않나 생각하기도 했다.

첫 주에 우리는 사진과 동영상 찍는 것이 역할이었는데 그마저도 좋았다. 카메라를 들이밀 때 마다 맘껏 웃어주고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하기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내 카메라에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었다.

COMPLEMENT CRERMONY

WORK CAMP





COMPLEMENT CEREMONY는 2주의 일정이 모두 끝나고 활동을 마무리 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만들었던 마당에서 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와서 같이 축제를 즐겼다. 우리를 위해 춤도 추고,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담은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



우리 역시 COMPLEMENT CEREMONY를 위해 그동안 짬을 내어 싱가포르 친구들과 함께 연습한 춤을 추고 베트남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난 후 베짱이의 CHEER UP공연을 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다!!

또 베트남 봉사자들과 함께 준비한 춤을 추고 난 뒤 마지막으로 학용품들을 나눠주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MEMORIES

WORK CAMP



마을 방문



학교 근처에 살고 계시는 가족들 집에 직접 방문하였다.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얘기도 듣고 같이 베트남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사실 이곳 호치민에서도 누군가의 집에 직접 방문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온전히 그 시간에 집중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값진 시간이었다.

하은 소감



마을방문을 갔을 때 우리를 따라서 몇 명의 아이들이 집에 들어왔다. 그 집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노는 모습이 놀랍기도 하고 좋아 보기도 했다. 과일을 나무에서 키워서 따먹고, 닭, 염소 등을 기르고 등등 그런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고, 우리를 위해 한 상 가득 채워 주신 어머니의 마음에 감사하기도 했다.

특히 어머니들과 어눌한 베트남어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너무 귀여워해주셔서 기분이 좋았고, 잠깐이었지만 정이 든 것 같았다. 그리고 활동 마지막 날에 늘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던 어머니가 ‘결혼하면 남편과 함께 다시 와라’는 말에 눈물이 났다.



준호 소감

방문한 집들은 아까 말한 컨스트럭션 사이트로 가는 길에 분포돼 있었다.

집은 생각보다 고급스러웠다. 살짝은 이질적이었고 자연을 거스르는 느낌도 들었다. 내가 방문한 집에는 아들이 한명 있는데 주말마다 집에 오고 평일에는 계속 호치민에서 일한다고 하셨다.(마지막날에 호치민을 여행하다 놀랍게도 만났다.) 점심때는 우리를 위해 이것저것 차려주신 음식이 많았다. 영어도 할 줄 아셨기에 주로 영어로 대화했다. 이냥저냥 이러다 준비한 세제, 쌀들을 전해드리고 나왔다. ㄷ? 난 이런 체험판 같은거 너무 싫다... 그래도 이거 아니었으면 만나보거나 했겠냐 감지덕지 해야지. 그러다 문득, 홈스테이를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었다.

메콩 델타 투어



마을 방문해서 점심을 먹고 난 후 메콩델타 투어를 했다. 강에 있는 배를 타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투어를 했는데 역시나 코코넛이 정말 많았다. 코코넛 캔디를 만드는 과정도 관찰하고 먹어보기도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몇 개 사오기도 했다.



과일도 먹고 전통 노래도 들으며 꿀물차도 마시고 경치가 정말
이쁜 섬에서 저녁도 먹었다. 이것 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가이드
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편안한 여행이었다.



구찌 터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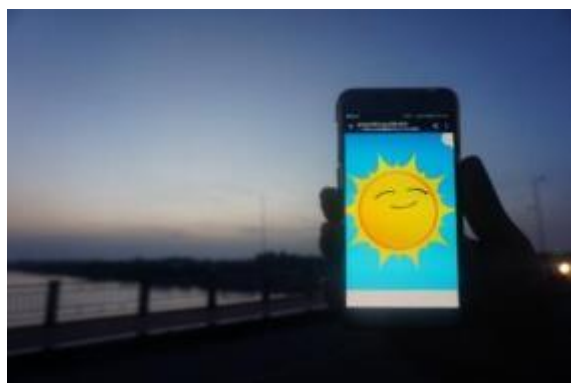
모든 일정이 끝나고 호찌민으로 돌아오는 중
우리는 구찌 터널에 들렀다. 이곳저곳 탐험을
많이 다닌 모습의 든든한 가이드 아저씨를 따라
베트남의 전쟁역사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전쟁
때 만들어진 잔인한 모양의 몇까지 여러 설명들
을 들었다.





구찌터널은 남북전쟁때 미국과 남베트남의 군사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터널이었다. 60~70센티미터 정도의 높이와 너비를 지닌 구찌터널 안은 그야말로 찜통이었다. 드문드문 환풍구가 있어 공기가 드나들수는 있지만 열악한 환경은 사실이었고, 매우 좁고 어두웠다. 포그려서 걸을 수 밖에 없었고 겨우 앞사람의 위치만 보이는 구찌터널에서 겨우 200~300미터 밖에 통과하지 않았지만 밖으로 나온 우리는 땀범벅이 되어 있었다.





마지막 날 아침 일출



모든 일정이 끝나고 싱가포르 친구들이 우리에게 파티를 열어주었다. 치킨!! 피자!!



안전문제 때문에 자주는 아니지만 하루 일정이 끝나면 같이 나가서 놀곤 했다



밤마다 방에서 모여 정말 많이 웃고 떠들었다.



／ 이별 ／

WORK CAMP

구찌터널로 여행을 갔다같은 날 저녁, 우리는 저녁을 다같이 즐겼다. 한 간사님, 론이 베트남 봉사자 대표로 그동안의 소감을 얘기했고 우리 라온아띠 역시 각자가 그동안 느낀 감정에 대해 얘기했다. 그리고 사실 이때 한 간사님이 오늘부로 YMCA를 그만둔다고 말해 우리 라온아띠에게는 더더욱 가슴 아픈 이별이었다. 싱가포르 봉사자들 역시 각자의 소감을 얘기하고 또한 우리에게도 덕담을 나누어주었다.





그날 밤 아쉬움을 뒤로하고 호텔 근처에서 벤틀마켓, 여행자 거리 등등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을 같이 다니며 마지막 파티를 즐겼다.

다음날 공항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고 그렇게 그들과 헤어졌다.



한 간사님과 이별

우리와 3달을 함께 했던 간사님이 유학을 가게 돼서 이번 워크캠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Y에서 일하지 않는다.
베트남에서의 3개월이 더욱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한 덕분인데 이렇게 떠나게 되어 아쉽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설날 때 한네 집에 묵기로 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미한~

8명의 베트남 봉사팀



바쁘지 않는 날 밤마다 우리는 모여서 하루에 대한 나눔을 하고
돌아가며 준비해온 게임을 하며 더욱 가까워지고 또 많이 웃을 수 있었다.
정말 그 누구보다 정이 많이 들었던 우리 베트남팀!!

마니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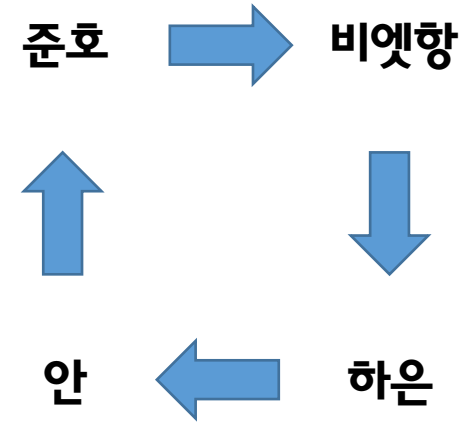
리더 한의 제안으로 우리는 2주간 마니또를
했고 자신의 마니또와 엔젤에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 날 선물과 함께 주고받았다.



휴대폰 케이스



모자



선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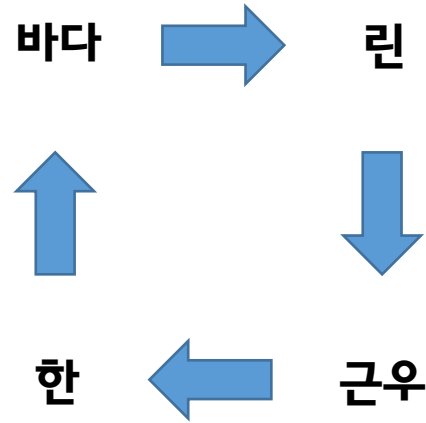


체육복 바지



과자

마지막 날 다 같이
숙소 근처에 있는 나이트 마켓에 가서
자신의 마니또를 위한 선물을 샀다.



모자



티셔츠



신발



피드백

- 나눔 분위기가 딱딱해서 아쉬웠다.
- 특히 나눔의 경우 한의 의사와 결정에 맞춰 모든 것이 정해지고 그것에 대한 공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아서 아쉬웠다.
- 밤에 나눔을 하는 것이 좋았다.
- 우리끼리 게임과 마니또를 진행하는 것은 좋았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는 다소 힘들었다.



8명의 베트남 봉사팀 소감



하은

우리 팀의 리더였던 한의 일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다른 봉사자들과 우리 팀원들이 있어서 그곳에 의지할 수 있었고, 나중에 가서는 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초반에는 매일 밤마다 나눔이 있었는데, 중반부터 한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좋았던 것 같다. 생각해보면 베트남 봉사자들도 워크 캠프 전에 딱 한번 만나고 함께 워크캠프에 가게 된 것인데, 만난 지 꽤 된 사람들처럼 어느샌가부터 서로 끈끈한 무언가가 생긴 것 같다.

준호



베트남 봉사자 4명이 이번 워크캠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통역을 다 해주어야 했는데 잘 해낸것 같다. 그래서 좀 부러웠다. 나는 베트남어를 잘 하고 싶다. 베트남에 있으면서 드는 생각 중 절반 이상이 언어에 관한 것인데 나도 그러한 통역을 해보고 싶었고 또 덕분에 베트남어 공부를 위한 동기가 꽤나 생긴 것 같다. 그래도 싱가포르 사람들이 물어보는 간단한 문장들은 내가 직접 통역해 주어서 기뻐했다. 아이들과 베트남어로 어느정도 대화할 수 있었던 것도 즐거웠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멈추자. 싱가포르 사람들은 2주후에 만난 후에 떠나가지만 반면에 베트남 봉사팀이라는 2주 만난후에 옹 역시 떠나네. 하지만 되게 오래 만난 듯 했고 편했다. 팀도 잘 맞았다. 짝꿍과 마니또 활동이 있었는데 더 친해진것 같다. 베트남 친구가 새로 생긴거니깐! 전체적으로 성공한 팀이라고 본다.

바다

만난 지 겨우 2주밖에 없었지만 싱가포르 사람들과 있을 때와는 다른 유대감이 있었다. 어느 날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을 컨트롤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때 하나하나 슬그머니 모여 괜찮냐는 말을 건네던 순간이 떠오른다.



근우

2주간의 워크캠프 이후 드는 생각은 딱 하나. 왜 이 친구들을 이제서야 알았을까...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어땠을까. 정말 소중한 인연을 얻었다.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의지했고 함께 있는 시간 정말 원없이 웃었다.

다만 한과 함께한 워크캠프는 솔직히 힘들었다. 한이 없는 7명의 봉사자는 정말 즐겁게 일했고 함께 장난치고 놀았지만 한이 오는 순간 분위기가 정반대가 되었다. 정말 숨막혔다. 나눔의 자리가 보고의 자리가 되었고 한에게는 의견보다 사실이 중요했다. '왜'가 아닌 'yes or no' 만을 묻는 나눔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나눔 같았다. 그냥 함께 있기가 정말 불편했다. 처음 1주일 동안은 그래도 같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챙겨주었지만 그마저도 힐난으로 돌아왔다. 일하는 방식, 위치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한의 모습은 내가 봐왔던 모습과는 너무 달라 그런 모습의 그녀를 더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2주 때는 거리를 두었다. 워크캠프가 끝이 나고 나서야 그 거리를 허물었던 것 같다. 자신에게만 관대했고 상처 되는 말들을 서슴없이 뱉어내는 것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한이 있었던 이해가 안된다.



베짱이 팀으로서 워크캠프



하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싱가포르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 새로운 경험, 영어로만 이야기 해볼 수 있었던 기회, 영어공부 동기 부여 등 좋았던 점이 아쉬웠던 점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활동이 대부분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다 보니 팀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건 정말 좋았다’ 싶은 게 떠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워크캠프가 끝나고 나서 각자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르고, 싱가포르 친구들을 대하는 온도 차가 있다 보니, 팀활동에 까지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바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추억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던 즐겁고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라온아띠 베프가 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전무했던 활동이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더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준호



사실 팀으로 뭘 한게 없어서 잘 모르겠다... 있나?



근우

서로에게 의지가 많이 되었고,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된 시간이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등 서로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었고 몰랐던 모습들도 볼 수 있었다. 싱가포르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을 보며 앞으로의 우리 활동지에서 함께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방식들을 배울 수 있었고, 우리 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서 워크캠프가 베짱이 팀에 있어서도 분명 좋았다.



워크캠프 전체 피드백

- 활동 중간 그리고 활동 후에 있는 싱가포르팀의 피드백 시간에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 싱가포르팀과 베트남팀에 대한 피드백이 공유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아쉽다.
- 활동 시작 전에 싱가포르팀이 기본 베트남어에 대해서 익히는 시간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활동 중간에 피드백을 하고 그 피드백을 바로 반영하는 방식이 좋았다.
- 베트남에 왔는데 오히려 한국인인 우리에게 더 관심을 많이 보여서 고맙기도 했지만, 난감했다.
- 워크캠프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해서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워크캠프 소감



하은

오전 7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8시면 출발을 해서 낮잠도 안자고 4-5시까지 활동을 했지만, 학교에서 먹는 밥도 맛있고 순수한 아이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즐거워서 힘들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매일 아침 cà phê sữa는 필수다. 그리고 밤에는 꽤 자유로워서 좋았다.

싱가폴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특히 28명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아 진짜 라온아띠 안 했으면 어쩔뻔 했어! 아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시간,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



활동지에서 활동이 끝이 나서 이제 아이들과 헤어져야 하는데, 내 예상과 달리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 난 그게 슬펐다. 그러나 클로징 행사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애써 미소를 지으며 먼저 울어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움직였다. 또 아이들이 그렇게 나에게 먼저 다가와줬다.

워크캠프에 가서 ‘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아이들은 나의 선생님이다.’, ‘아이들은 어떻게 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순간 순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또 그것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이별을 할 때는 울다가도 또 금방 웃으며 손을 흔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이켜 보면 워크캠프 2주는, 싱가포르 친구들에게도 벤째의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베트남 봉사자들과 운전기사분과 선생님들 그리고 마을주민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적이 내 인생에 있었나? 앞으로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준호



2주동안 만난 모든 생물, 무생물들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나하나 말을 걸어보면 어떤 뿌리깊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만 같고, 어떠한 일종의 자연의 광활함에 대해서도 느낀 것 같다. 자세한 묘사를 하고 싶지만, 일단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하고 표현력도 없고 괜히 이렇다 하고 특징 짓기 싫어서 그저 좋았고 편안했다 이런 느낌으로 분위기를 추정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덕분에, 나 안해! 이려고 다 때려치고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겼다. 그놈의 단체가 뭐라고. 내가 항상 라오스를 부러워하는데 어라 라오스에 가면 이런 느낌이 들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건 누가 얘기해 준건데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를 글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제대로 느낀 것 같다.(이 얘기는 앞으로도 많이 할 것 같다.) 그저 순수하고 행복하고. 사실 호치민도 대도시이긴 하지만 뭐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 아 베트남 사람들은 도대체 프리타임때 뭐를 할까 생각해왔는데 하물며 이곳 벤째는 어떨까. 그러다 그냥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이 복잡하게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를 억지로 만들고 그에 맞는 상품을 만든다. 마치 자기가 원해서 소비하는 듯한 착각이 들게끔. 친구와 얘기를 할때는 카페에 가야하고 결혼 할 때는 예식장에 가야하고 등등. 있는척이라고 하면 맞을까. 어찌보면 담배와도 같다. 담배를 피우게 해놓고 담배의 필요성을 강제한다 마치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 처럼. 물론 비흡연자에게는 전혀 아니겠지만. 이걸 살짝 다른 얘기지만 감정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생각 깊은척, 예민한척, 뭐가 어찌고 저찌고 얘기를 위한 얘기에 싸움을 위한 싸움에 사과를 위한 사과에 그냥 나중에 보면 아 내가 왜저랬지 하는 싸이월드같은 마음만 들지 않을까. 좋아 의식의 흐름기법을 사용하다 보니 글이 쓰레받이가 구나. 또 생각해보면 원래 지구는 정글들로만 이루어졌을텐데 어떻게 서울같은 도시가 생길 수 있었나하고 인간들이 신기하기도 하다. 옹 또 생각나는대로 아무렇게나 썼네. 대충 마무리를 하자면 나는 만약에 내 자식이 있다면 이런곳에서 키우고 싶다. 태생부터 시골에서 자라온 그 시골감성은 정말이지 대단한 것 같다.





싱가폴 사람들과 얘기를 좀 나눠본 후에 든 첫 생각은 왜 싱가포르가 동남아에 있을까 였다. 에이 근데 조준호 니는 해봤자 캄보디아 2주 베트남 4달밖에 안살아놓고 동남아 다 아는것처럼 말하냐. 근데 암튼 뭐 그랬다.

- 작지만 부유한 나라.

- 영어, 말레이어, 타밀어와 중국어가 공용어.

대부분의 싱가포르 사람들이 영어와 중국어를 아주 잘했다. 말레이어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 따지고 보면 모국어가 2개 이상인건데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언어가 2개 이상이면 어떤 느낌이 들지 궁금했다. 살아있는 사전.

- SNS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내가 고1때 한참 카스가 유행했는데 그 때 애들이 카톡을 다 보고나면 카스 알림이 뜨고 카스를 다 보고나면 카톡 알림이 뜬다며 투덜거렸던게 생각난다.

- 사교성이 많은 것 같으나 이것은 싱가포르 사람 전국민이 사교성이 많다해도 딱히 특징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 외에는 딱히 특징잡기 어려운데 그 뜻은 한국사람인 내가 특징잡기 어렵다는 말이므로 한국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 딱히 특별히 느껴지는게 없었다고 하면 맞을까 싶다.

바다



머시따 멩게

대부분의 친구 사이가 그러하듯, 어떻게 친해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 어찌다보니 친해져버렸을 뿐이다. 근데 자꾸 자기 한국 이름이 ‘머씨따’라고 우긴다. 그래서 ‘머시따’는 이름이 될 수 없다고, 내가 제대로 된 한국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큰 소리를 땡땡 쳤다. 그 애가 한국에서 태어난다면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 고민했지만 아무래도 좀 어려웠다. 하지만 그 애한테 정말 어울리는 이름을 찾아주고 싶었다. 어느 날 ‘민지’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물론 주로 여자이름으로 쓰이지만 어찌됐든 언밸런스의 매력이 있었다. 요즘 세상에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이 어딴냐. 무튼 그래서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민지라고 선언했다. 약간 뽀뽀한 얼굴이었지만 받아들이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민지가 여자 이름이라는 걸 안 이후, 자기 이름은 머시따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하도 강경히 주장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다.



다음날 일정이 다 끝나고 갑자기 와서 내 중국 이름을 지어 주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내 이름은 ‘하이션’이라고 한다. 뜻이 뭔지 한국어로 뭔지 찾아보니까 해삼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그럼 너 한국 이름은 멩게라고 선언했다. 그런 식으로 서로를 열심히 놀리며 2주가 지나갔다. 이별이 다가오자 그 친구는 편지를 주었다. 편지 마지막에는 삐뚤삐뚤한 한국어로 ‘머시따 멩게’라고 적혀 있었다. 웬지 미안했다. 제대로 된 한국 이름 하나를 바랐지만 민지나 멩게 같은 이상한 이름만 생겼으니까. 그래서 또 열심히 고민해 예쁜 이름 하나를 선물했다. 그건 바로 “산”.

레이

레이는 중학생이면서 자꾸 초등학교에서 서성이는 아이이다. 남자팀원들에게 서우과~(아우 못생겼다)를 외치고 다니길래 조금 마음에 들었다. (장난!) 그리고 자꾸만 부온과~(아우 슬퍼~)를 외치고 다니길래 무엇이 그 앨 자꾸 슬프게 만들었을까 궁금했다. 어쨌거나 개가 부온과~를 외치면 나는 멧과~(아우 피곤해~)를 외치는 식으로 서로 친해졌다. 그리고 내 사진기를 좋아했다. 사진 찍히는 것보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는데,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찍었다. 그래서 또 나는 레이가 참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줄넘기를 참 잘했다. 노란 고무줄을 엮은 아주 긴 줄넘기를 보며 나는 그애의 솜씨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머리도 참 잘 묶었다.





나는 비록 머리가 짧아 묶을 수가 없었지만 하은이의 머리를 참 예쁘게 묶을 줄 알았다. 하지만 정작 레이는 노란 고무줄로 머리를 묶었는데, 나도 여러 번 노란 고무줄로 머리를 묶어본 터라 끈을 풀 때의 아픔과 귀찮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이트마켓에 가는 길에 알록달록한 머리끈 몇 개를 샀다. 마지막에 머리끈을 건넸더니 행복해하는 얼굴이 참 예뻐다. 잠깐 어디 다녀오더니 작은 아이스크림을 내밀었다. 워크캠프 규칙 상 아이들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터라 “씬로이, 찌 노 로이(미안, 언니 배가 불러)”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애가 왜 지금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는지, 너무 잘 알던 터라 사람들 몰래 먹었다.



이처럼 워크캠프는 ‘사람’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알게 했다.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을 척 내다주는 아이들과, 따스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다. 그동안 사랑을 줄 때, 호의를 베풀 때 얼마나 계산하고 살았었나. 그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그들 덕분에 나도 연습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주는 연습.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는 방법. 주고 싶을 때 주는 방법. 연습을 도와준 모두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근우

무지했던 싱가포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과는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병원, 약국에 가면 성분 하나하나 따져가며 약을 산다. 그리고 가장 부러웠던 부분은 형, 누나, 동생 할 것 없이 다 친구같이 지낸다. 쓸데없는 나이 역할도 없고 서로 존중하며 지내는 그들을 통해 많이 배웠다. 나도 이게 옳지 않구나 인식 하지만서도 나이 역할에 빠져서는 ‘어쩔수 없지’ 하곤 했는데 이들을 보며 ‘어쩔수 있구나’가 되었다.



아이들을 통해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2주였다. 아이들 덕분에 힘을 얻기도 많이 얻었고 웃기도 정말 많이 웃었다. 때론 더 마음이 가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심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토라져서 뺨 돌아섰다가도 이내 돌아와서 손을 붙잡고 DI CHOI (놀러가요) 말하는 아이들 덕에 작은 것 하나도 쉽게 회복 못하는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헤어질 때 애써 울음을 참고 웃으며 인사해주는 아이들 덕에 이번 12월은 정말 따뜻했다.

PART 3
활동



주요 스케줄

월 UTE 한국어 수업

화 스마일 레스토랑

수 홍안 유치원

목 언어 교환

금 레딘친 초등학교



UTE 한국어 수업

월요일





12월 2일

수업을하기로 정해진 요일은 매주 월요일이지만
월요일에 사정상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업이 다른
요일로 미뤄지기도 한다.

12월 2일은 금요일이지만 갑작스럽게 취소되었던
11월 28일 월요일 대신 이 날 수업을 했다.



12월 26일

바다는 배가 아파서 집에서 쉬기로 했고 준호, 근우, 하은 셋이서 수업을 했다. 준호 노트북은 연결 포트 따로 없이 빔프로젝터와 연결할 수 있지만 바다 노트북은 연결 포트가 필요하다.

아침 8시 30분 수업이라 부랴부랴 준비해서 가려는데 그 연결 포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근우는 준비한 PPT없이 즉흥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중간 평가 이후 활동에서의 함께하는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 보조교사의 역할을 수업에 때로는 직접 참여하고 수업을 함께 듣고 난 후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며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정했는데 이 날 잘 이루어진 것 같다.



1월 6일

UTE에서의 마지막 날, UTE선생님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유명한 베트남 전통 음식점을 데리고 가셔서 정말 배터지게
많이 먹었다.



이별이 아쉬워 입구에서만 사진을 엄청 찍었다.
정말 과분한 사랑 많이 받았던 UTE.
정기 많이 들었던 모든 선생님들을 다 보고 가지
못한 것이 다만 아쉬울 뿐이다.

UTE는 항상 하기 전까지는 귀찮게 느껴지지만, 막상 수업을 하고 나면 ‘오늘도 좋았다’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어 선생님께서 자질이 한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항상 준비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잘 따라와주고, 작은 것에도 반응해주는 학생들이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서 힘이 나고 보람을 느낀다. 저번에 보니까 아성유학센터에 명지대도 있던데, 우리 학교 오면 언어 교환 하고 싶다. 하하



워크캠프와 개인적인 몸 상태로 인해 12월에는 UTE에 한 번 밖에 가질 못한 채로 활동이 끝났다. 마지막 남은 기간에는 새로운 콘텐츠를 고민해서 더 좋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수업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없다니 아쉽다. 이렇게 어이없게 UTE 활동이 끝나버렸다.



초반에 내가 했던 지배적인 생각은 바로 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UTE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준 좋은 활동지였다. 느낌은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 그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틀을 하나 더 심어준 나름 신선한 활동이었다.



준비했던 수업을 할 수 없었던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던 이번 12월은 나에게 큰 경험이었다. 아침에 연결선이 없다는 것을 듣고 즉흥적으로 수업을 해야한다는 것을 듣고는 정말 머릿속이 백지였다. 그래도 워크캠프를 하면서 느낀 교훈!! ‘상황을 탓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자!!’ 그래서 오히려 덤덤했던 것 같다. 그리고 하은이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또 잘 따라와주는 학생들 덕에 수업을 하면서도 정말 재미 있었다.

UTE는 준비는 힘들지만 수업은 항상 즐겁다. 우리 수업의 목적이 한국어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와 발음 교정임에도 최근 3,4번의 수업은 이 친구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전달해 주고 싶은 욕심에 정말 많이 가르쳤다. 때로는 재미도 없고 벅차기도 했을 텐데 잘 따라와준 학생들에게 너무 고맙다.

선생님들, 학생들 덕에 힘을 얻기도 하고 많이 웃고 즐거웠던 추억들이 너무 많은데 마지막 날 학생들이 우리 수업을 정말 좋아해주었다고 오히려 고맙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학생들에게도 좋은 시간이었구나 싶어서 안도했다. 정말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UTE. 이 곳에서의 경험 만큼은 잊기 힘들 것 같다.





스마일 레스토랑

화요일



점심시간에 찾아오는 손님들만 500명 가량이다.
하지만 봉사자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12월에는 왜인지 몰라도
최근 봉사자가 정말 많이 줄었다. 마지막 일정이 다가올수록 불안함만
커졌는데 1월 3일 마지막 일정인 날 다행히도 우리가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봉사자가 우리 스마일 레스토랑에 찾아왔다!!!



피드백

- 자신의 할 일이 끝나면 찾아서 하자는 저번 피드백이 반영되어서 좋다.
- 성별에 의해 역할이 한정되는 것이 아쉽다.
- 설거지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 외에는 다양한 역할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아쉽다.
-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정리 까지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다.
- 신나는 노래들을 미리 준비해서 틀어도 재미있을 것 같다.
- 함께 스마일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았다.



스마일 레스토랑에 들어서면 보이는 익숙한 얼굴들이 반갑다. 우리는 서로 반갑게 인사한다. “썬짜오!” 웃는 얼굴과 익숙한 인사말이 좋다. 12월에는 주로 배식을 했다. 배식을 같이 하는 아주머니들은 신나는 비트의 노래에 조금이라도 어깨를 들썩이면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어주셨다. 나는 그 웃음이 좋아서 바보 같은 짓을 계속했다. 처음엔 낯설었던 사람과 이곳의 일이 점차 익숙해지고 정겨워지는 과정이 좋다.





처음으로 마주한 활동지와 이별. 사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점심시간. 하루에 고작 1시간 반. 그마저도 일 하는 중에는 바빠 서로에게 신경쓸 겨를도 없다. 93번과 1번 버스를 갈아타 아침에 도착하면 보이는 풍경은 많은 오토바이와 뭔가 찌뿌둥한 표정의 사람들. 뭔가 부족한 느낌의 거리를 지나면 카운터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봉사자분들. 더 안으로 들어가 좁다란 직사각형에 들어서면 먼저 점심을 드시고 계시는 봉사자분들. 이곳에서 몇십년째 일한듯 연륜이 넘쳐 보이는분들부터 씩씩한 대학생 봉사자들, 우리같은 외국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매일 똑같은 풍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똑같은 반찬, 똑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곳은 내가 저번주에 왔던가 아니면 다음주 일을 미리 하고 있나 착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대로 박제되어 있는듯한 어떤 정적인 편안함이 좋다. 어떤 활동도 이루어 지지 않는 9월부터 유일하게 시작된 스마일 레스토랑. 또, 직접 몸을 써가며 하는 유일한 봉사활동이었기에 생각이 많이 난다. 활동이 끝나고 같이 밥을 먹던 풍경도 떠오르고 바나나를 2~3개 더 꺼내 먹을 수 있어서 그저 행복했던 소박함과 일 하는 도중 기지개를 폈을 때 느껴지는 짜릿함도 간직하고 싶다. 나는 이 일을 사랑한것 같다.



무엇을 해야 할 지 몰라서 멍뚱멍뚱 서있었던
처음과 달리, 이제는 언제 가도 자연스럽게 어
울릴 수 있는 스마일레스토랑. 이제 ‘설거지,
반찬 담기, 국 담기, 밥 채우기, 식판 나눠드리
기 등 내가 했던 일들을 이제 다른 봉사자들이
하겠지?’ 활동 마지막 날에 베트남 오면 꼭 다
시 들리라는 말씀처럼, 또 미래에 언젠가 다시
자연스럽게 함께할 날을 상상해본다.



‘아 내일 스마일 레스토랑이야??’ 초반에는 스마일 레스토랑 일정이 정말 힘들게만 느껴졌다. 겨우 2시간 남짓의 시간이지만 하고 나면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 몸을 뉘이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제는 끝날 때가 되면 ‘벌써 끝이야?’ 하고 말하는 나 스스로가 놀랍다. 이젠 이 활동들이 모두 익숙해져버렸는데 이 정든 곳을 떠나려니 마음이 무겁다.

12월은 정말 봉사자가 적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들 만으로서는 이 힘든 일을 다 해 나가기에 벅차다. 다행히도 1월 첫째주 많은 봉사자들이 찾아왔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자들이 이 곳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홍안 유치원

수요일



준호네 반 만 3세



준호의 최애

웃는 인상이 워낙 예뻐서
준호가 '박보검'이라고
부른다



하은이네 반



하은이의 최애

꼬까의 엄마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 하은



바다네 반 만 4세



바다네 반 만 4세



바다네 반 만 4세

바다의 최애

바오는 아기 원숭이 같다. 자꾸 귀를 만지려고 하고 자꾸 나를 올라탄다. 근데 그게 또 너무 귀엽당. 사실 왜 좋아하느냐- 에는 이유가 없다.



바다네반

근우의 최애

차례대로 남 / 유응우이엔 / 씨유
나중에 꼭 딸 낳아야지!!!! -
근우



근우네 반

만 5세



근우의 최애

따이!!!!!!

우리반에서 가장 의젓하고 내 생각을
많이 해주는 친구다.

아이들이 폭력적이 되면 말리기도

하고 집에 가야할 때면

터이 디 베!! (선생님 집 가야해!!)

외치며 붙잡는 애들을 설득시킨다.



안녕 홍안... 1월 4일을 마지막 일정으로 홍안과도 작별했다.





피드백

- 모기퇴치제, 물린데 바르는 약 챙기기
- 쭈삐 삼촌이 1층에서 주무시니까 늦게까지 1층에서 시간 보내지 말기
- 선생님들과 가까워지려는 노력하기
- 홍안과의 피드백이나 소통의 필요
- 간사님의 동행 여부 미리 공지 필요
- 개인활동에 대한 나눔 필요

바다

11월 말부터 아이들과 함께 낮잠을 자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잠에 들기 싫어 자꾸 옆에 누워있는 나를 괜히 건드리고 꼬집기도 하지만 언제부턴지 스르르 잠에 들어버린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그 모습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잠에 들어버리는 것도 재미있다.





또 이번 달에 들어서 선생님과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선생님은 나에게 큰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저것 소소하게 많이 챙겨주시고 계셨다. 낮잠을 잘 때에는 깨끗한 담요와 안고 잘 인형까지 챙겨주신다. 새해 기념 금색 꽃을 만드는 선생님께 참 예쁘다고 말을 건네니 직접 만든 꽃 하나를 건네주신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낮잠을 자는 나에게 비가 온다고, 비가 오면 집에 돌아갈 수 있냐고 걱정하는 귀여운 아이들. 나는 이곳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었구나. 새삼 감사하고 행복했다.

근우

한국에서 베트남에 올 때부터 갖고있던 고민은 아이들이었다. 대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졌던 아이들. 아이들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당황만 했다. 그리고 홍안에 서의 첫날도 그랬다. 아니 한동안 그랬다. 그동안 아이들과 노는 내 모습은 그냥 ‘놀아주는’ 거였다. 마음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해야하는 거니깐 이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다.





하지만 갈 때 마다 항상 진심으로 반겨주는 아이들을 보고 또 티 없이 맑은 그 웃음들을 보면서 이젠 내가 좋아서 나와 놀아주기를 바라게 되었다. 내가 먼저 찾아가게 되고 자꾸 보러 가고 집에 갈 시간인데도 더 남아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놀랐다. 아직도 때로는 아이들과 있을 때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어색함마저 이젠 즐겁다.

홍안에서의 아이들 덕분에 앞으로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날 정들었던 애들에게 간다~하니깐 계속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그 모습들이 계속 아른아른거린다.

준호

마지막 날, 5개월 내내 나를 하나도 신경쓰지 않던 여자 아이가 처음으로 다가와 주었다. 항상 졸린듯한 표정에 울지도 않고 그리 눈에 띄는 아이는 더더욱 아니었다. 한국인처럼 생기기도 했고, 어떤 만화 캐릭터 주인공 같이 생기기도 했다. 어째서지. 늘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반은 20명! 나머지 19명 아이들과 짹짹하며 지내던 5개월 이었다.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잠시 멈췄던 정류장에서 항상 보이던 노을,
어둑어둑해진 홍안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항상 우리를 위해
저녁을 차려주시던 주삐와 원장님, 다음날 일어날때쯤이면
시끌시끌하던 아이들의 소리, 그 아이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서
꿀맛같은 낮잠을 자며 맞던 바람.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
아가들 사진을 한번도 안찍었네. 마지막날에는 열심히
찰칵거렸다. 아맛다 옆집 미유와 항상 놀러오던 초등학생 애기도
빼먹을 뻔했네. 5개월이 어떤 한 순간처럼 꺾꺾 이쁘게
눌러담아지다 다시 그 아이가 생각났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내가 먼저 다가갔구나. 오호라. 이 아이 덕분에 깨달음도 얻고
가네.

활동 마지막 날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때 몇몇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은 아마 ‘이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도 이 아이들과 이제 더 이상 못 만난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 났고, 난 앞으로 이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흉안에서 가졌던 생각들을 잊지 않고 내가 미래에 교사가 된다면,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면 가끔은 힘들고 화가 나도 다시 한번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은



언어 교환

목요일





한 공간에서 각자 수업을 하면 집중이 안된다는 우리의 피드백 이후 우리는 자주 근처 카페에 가서 각자 파트너와 함께 공부했다. 수업이 끝난 후에 같이 먹을 것을 사먹기도 하고 2시간이 아쉬워 카페에 더 앉아 얘기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준호는 아직도 파트너가 없다...



마지막 수업

마지막 수업은 파트너들과 함께 추억을 쌓고 싶다는 우리의 의견을 들어 준 고마운 Y 덕에 수업 대신 1군에 가서 길거리 음식들도 먹고 구경도 다녔다.

그동안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서로 더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다.

Ps. 준호는 린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피드백

- 준호는 파트너가 없다.
- Y에서 파트너가 온 지 안 온지도 모르는 등 너무 무관심하다.
- 체계가 없다.
- 언어 교환인데 한국어 비중이 훨씬 높다.



내가 요즘에 힘들다는 말에, 언어교환 끝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준 내 짝꿍 미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누군가에 곁에 아무 이유 없이 함께해준 적이 있는가? 나는 미랑 많이 친하지도 않은데 미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등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미에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이제 만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니 아쉽다. 그래도 한국가서도 계속 연락하면 되니까! 이 소중한 인연 잃지 않도록! 언어교환에서 솔직히 언어는 얻지 못했지만, 친구를 얻었으니 그걸로 다 되었다.

이번 12월에는 수업보다는 일부로 많이 놀았다. 점차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는 게 아쉬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나나 튀김 파티라고 즐거워하며 (프엉과 내가 짱 좋아하는 음식이 바나나튀김이다.) 바나나튀김과 스무디를 사서 그저 앉아 이야길 나누었다. 무슨 이야길 나눴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저 즐거웠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도 마지막날에는 파트너가 생겼지롱 히히 ㅎㅎ)
목요일은 통째로 비는 날이 많았기에, 시간이 아깝다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들어 준 시간.



탄니는 영어를 엄청 잘한다. 그래서 수업 중에 베트남어 뿐만 아니라
영어도 함께 배웠다. 일주일동안 쌓였던 베트남어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시간이
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바다/
과 함께 바나나튀김을 사먹기도 하고,,, 소소한 일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레딘친 초등학교

금요일



12월 23일

11월 초부터 워크캠프가 끝날 때 까지 레딘친에 한동안 가지 않았었기에 11월에 그리던 첫번째 벽을 이제서야 마무리 지었다!!!

한 간사님이 제안했던 벽화 그림인데다 싱 간사님으로 바뀌고 첫 일정이라 그런지 함께 있지 못한 한이 그리웠다. 그래도 언제나 친구같은 우리 싱간사님이 함께라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오전시간에는 벽화를 그리고 오후에는 수업을 했다.





12월 30일

오전 벽화, 오후 수업 일정이었지만 원장님께서 우리 그림을 보시더니 베트남어로 싱 간사님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중에 들리는 단어가 싸우(못생겼어) 였다. 그러시더니 우리보고 이제부터 남은 기간 수업 하지 말고 다른 벽에 벽화를 그리라고 하셨다. 불편하고 죄송스런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은이가 가서 귀엽게 싸우콤?(못생겼어요?) 하고 묻자 다들 엄청 웃으면서 분위기가 다 풀렸다. 덕분에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벽에 벽화를 그릴 수 있었다. 다만 전날 수업을 열심히 준비한 것과 이제 아이들과 수업을 못할 생각을 하니 조금 아쉽기도 했다.

그림 선정부터 구도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정말 잘 조절했다.

지난 3달의 함께 산 시간들의 결실을 우리는 이날 보았다!!!! 정말 **베**트남이 **짱**이야!!!!





1월 6일

마지막 레딘친!!! 저번 주에 그린 밑그림에 색을 입혔다.



색칠까지 마무리를 잘 짓고
옥상에서 사진을 찍고 레딘친과 작별했다.





피드백

- 수업이 끝나고 남은 시간에 다 함께 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 볼 것
-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고민해보기
- 수업 중 메인교사 이외에 다른 팀원들도 분배하기
- 벽화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레딘친이나 Y에서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다.
- 하루 전날에 수업을 준비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수업을 미리 준비하고 수업에 필요한 교구들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다.
- 미리 준비하기 위해 일정이 교육인지 벽화인지 빨리 공지 되었으면 좋겠다.

레딘친 초등학교에서 티칭은 이번 달 한번 빼면, 처음에 한 번 밖에 하지 못했지만 이번 달에 오랜만에 찾아간 학교에서 아이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반겨주어서 고마웠다.

그리고 우리의 주요 활동이었던 벽화는 처음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지만, 벽화를 대하는 나의 방식이 발전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네 명이 하나의 벽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보니, 내 생각과 달리 일이 진행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 지 어려운 것 같다.





벽에 그래피티나 예술작품을 그리는 사람들을 보고 대단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레딘친에서 벽에다 뭘 끄적끄적
거려본 결과 엄청 대단하네! 로 생각이 바뀌었다. 난 그림에
소질이 없다 하하
역시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있는 것 같다.

그전 달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다. 먼저 수업의 경우는 미리 그림을 준비했다. 여러 개의 수업에 들어가다 보니 매번 칠판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 그래서 이면지 몇 개를 붙여 큰 종이를 만들고 알록달록 그림을 그렸다. 베트남어로도 수업내용을 적었다. 또 통역 봉사자 없이도 우리끼리의 힘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신나면서도 뿌듯했다. 빈곤퇴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위생에 대한 교육을 한 이후는 벽화 활동을 진행했다. 그전 벽화는 과정에 대한 논의 없이, 각자가 맡은 부분만 끝냈다. 이번에는 그 전 벽화보다 더 잘하고 싶어서 밑그림부터 채색까지 한 단계마다 차근차근 다 같이 힘을 모아 완성했다. 레딘친은 우리가 팀으로서 해야만 하는 활동인 만큼, '같이' 또 '함께' 해냈다는 사실이 나를 참 뿌듯하고 기분 좋게 했다.





수업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은 정말 머리 아프지만 수업 준비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즐거웠다. 특히 프린트가 안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았던 것 같다. 팀원들과 함께 직접 그림을 그리고 모든 수업 자료들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상황들은 과정이 보다 즐거워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아 그리고 수업을 준비 다 해왔는데 벽화 하라고 해서 결국 그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일정이 마무리 된 것이 조금 아쉽긴 하다.

수업 내용은
다음 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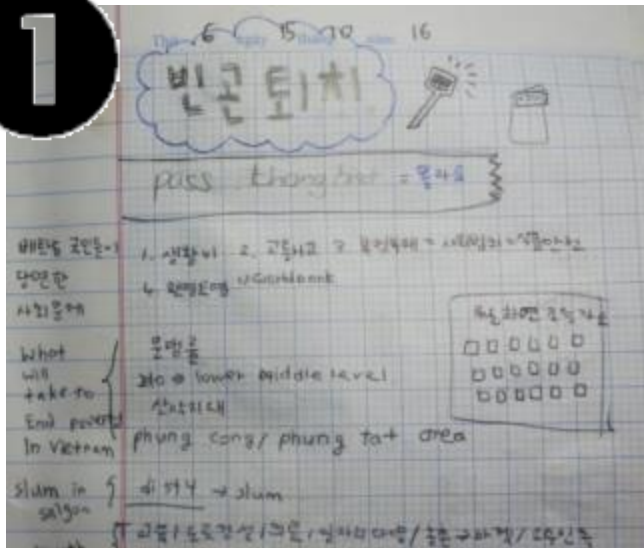
PART 4

빈곤 퇴치

ề và câu



1



베트남의 빈곤에 대한 이야기 나눔

➡ 결과 : 우리 스스로 베트남의 빈곤을 정의하는 것은 위험하다.

2

End
Poverty
Campaign

2016. 10. 17
International Day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

CAMPAIGN WITH
Vietnam YMCA, Yongsan YMCA, Pangasinan YMCA, Caritas Kandal,
Phoudindaeng Youth Center, Korea YMCA

우리의 코디네이터 한, 그리고 성과 함께 빈곤퇴치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 나눔

➡ 조언 : 베트남의 사회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난 후
베트남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

3



베트남에 대한 공부,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베트남의 빈곤에 대한 재나눔

➡ 베트남에는 다양한 종류의 빈곤이 있다.

4

an b...BT

1. Giới tính của bạn? ☐ 10-19 tuổi ☐ 20-29 tuổi ☐ 30-39 tuổi ☐ Khác ()

2. Giới tính của bạn? ☐ Nữ ☐ Nam ☐ Khác ()

3. Bạn nghĩ vấn đề nào là vấn đề nghiêm trọng nhất ở Việt Nam?

☐ Vấn đề về giáo dục (Thiếu giáo dục, chất lượng giáo dục...)

☐ Vấn đề về khu vực (khoảng cách giữa giàu và nghèo...)

☐ Phân biệt đối xử (nam & nữ, phân biệt dân tộc)

☐ Vấn đề về an toàn thực phẩm (côn trùng, vệ sinh của các nhà hàng)

☐ Vấn đề về giao thông (an toàn giao thông, ùn tắc giao thông...)

☐ Cái khác ()

4. Nếu bạn chọn 1 vấn đề cần được khắc phục ở Việt Nam, bạn sẽ chọn vấn đề nào. Làm ơn viết rõ.

5. Viết nguyên nhân và cách giải quyết mà bạn nghĩ phù hợp nhất.

- Cảm ơn -



우리가 공부한 베트남의 빈곤에 대해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베트남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설문지를 만들

UTE 에서 수업이 끝난 후 20대가 생각하는 베트남의 빈곤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위생’이 베트남의 빈곤!!

홍안유치원이나 레딘친 초등학교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많이 썩어있는 아이들의 치아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위생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손 씻기에 대해 다시 공부한 후
손 씻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춤을 연습하고
수업 관련 자료들을 만들었다.

우리가 선택한 수업은 위생의 가장 기본인 손씻기!!!



1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



그림 활용

여러가지 상황을 **역할극**으로 준비해서 보여주고 난 후 아이들에게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아이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았다.

2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



3

손을 씻는 방법!!!



그림으로 먼저 배우고 아이들과 함께 앞에 나와서 그림을 보지 않고 손을 씻어보았다.



아이들과 함께 노래에 맞춰 손 씻기 춤을 함께 배웠다.



원래는 베트남 봉사자인 쟁과 함께 수업하기로 했지만 급한 일이 생겨 오지 못한 쟁 없이 우리끼리 수업을 하기로 됐다. 하지만 준비할 때부터 봉사자에 의존하지말고 우리끼리 해보자고 얘기했던 터라 아이들과도 문제없이 잘 소통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A group of four young people are gathered around a birthday cake. The man on the left is blowing out the candles. The woman in the center is looking at the cake. The woman on the right is looking at the cake. The man on the far right is looking at the cake. The cake is on a tray and has two lit candles. The scene is dimly lit, with the light from the candles illuminating the people's faces.

PART 5

우리는 요즘

12월 23일



워크캠프때의 인연인 비엠헥과 른, 그리고 한과 함께 거리
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맘껏 즐겼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는 큰네 가족과 함께 보냈다. 엄청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셔서 우리 모두 배가터질때
까지 먹었다. 그리고 큰과 큰의 조카들과 함께 주변을 돌아다녔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베짚이끼리 시내에 나가서 즐겼다.
맛있는 냄도 먹고 쇼핑도 하고 맘껏 크리스마스를 즐겼고
근우와 바다는 함께 삼겹살을 먹기도 했다.

집에서는 바다가 사온 케익과 근우가 사온 빵으로
파티를 열었다. 라온아띠 우리 기수인 16의 초를 켜고
함께 불었다.



근우가
선물한 팀
커플 열쇠
고리



2016 2017
12월 31일 ~ 1월 1일

호치민 응우이엔 후에라는 큰 보행자 거리가 있다. 12월 31일 이 곳에서 카운트 다운 행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른, 비엠헤, 한과 함께 축제를 즐겼다. 연예인들도 많이 왔고 심지어 DJ 소다도 왔다!!! 른에게 물어보니 DJ소다는 베트남에서 인기가 많다고 한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고 맥주를 마시며 즐기다 보니 어느새 카운트다운!!!



30초 남았을 때!!!



RAONATTI 16TH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ART 6
개인 에세이



준호의 에세이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페퍼톤스 – 스커트가 불어온다” 를 들 으면서 이 에세이를 읽도록 하자. 이 에세이에는 아무 내용이 없 다. 혹시 시간을 헤프게 쓰고 싶다면 계속 읽어내려가고, 하루를 보람차게 살고 싶다면 바로 다음 에세이로 넘어가면 된다. 원래 이번 달 에세이도 지난달처럼 잡다한 생각들이 담긴 짹짹글 글들로 채우기로 마음먹어서 수시로 노트에 아이디어들을 정리 해 놓아 대충 30개쯤 모인 것 같다. 아 근데 보니까 아직도 노래 안틀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얼른 Youtube라도 틀어서 노래를 들으며 이 에세이를 읽길 바란다. 암튼 그래서 자! 이제 이걸 글로 옮겨 적어볼까 했는데 뭐 아무 쏘록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이 에세이 에는 아무 내용이 없다. 그냥 넘어가도 된다. 내가 글을 쓰는 이 유는 온전히 다른 사람과 그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알리기 위해서. 오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존재하는구나 정도만 되어 도 나는 만족스럽다. 하지만 별로 부질없음을 깨달았다.

그래도 글을 쓰면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잖나 해도 나는 역시나 글을 잘 못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비해 글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 것 없이 써진다. 글은 생각을 전하는 수단일 뿐인데 글은 내 생각을 열심히 잡아먹는다. 변형하고 왜곡한다. 아니다. 사실 글을 쓰면서 생각이 커가긴 하지만, 다시 아니다, 쓰는 도중에 내 생각은 완벽히 정리된 반면 그 시점에서 글은 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사실상 해독이 불가능한 그런 문장들을 매끄럽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까. 있긴 있다.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건 아무래도 소용없는 것 같다. 내가 진짜 남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굳이 나누려하지 않아도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다. 하나는 써야겠다. 역시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된다. 어차피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너무 시리어스하지 않게 마음껏 살아야겠다. 이 에세이에는 아무 내용이 없다.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를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나는 그동안, 어차피 죽으니까 어떻게 살든 쓸모없다 라는 어떠한 신념 같은 것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다. 근데 요새는 다른것도 믿고 있는데 저 것과 정확히 동등한 위치에 있는, 어차피 죽으니까 정말 멋있게 살아보자! 를 믿고 있다. 별로 감동적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어차피 죽으니까 대충대충 살자 라는 생각과 저것을 동시에 믿고 있기 때문이다. 앵 근데 두개가 모순되는건 아닌가 하지만 그리 특이한 일도 아니다.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막상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순간이 되면 귀신이 나올까봐 무서워 하듯이. 이 에세이에는 아무 내용이 없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시리어스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 애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에세이라고 써졌힌걸까. 이제 노래를 꺼도 된다.

바다의 에세이

어떻게 하면 이 고마운 맘 조금의 상함 없이
온전히 그대의 맘속에 전할 수 있을까
나는 오늘도 그대가 건네준 이 온기를 신고서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눈물도 넉넉히 견뎌 걸어간다.
포기할 용기보다 나아갈 용기가 커진 날 보며
이제 조금은 안심하고 널 응원 할 수 있겠다 말해준
나보다 강한 마음으로 날 지켜봐 줬던
너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부른다

강아솔의 노래, 매일의 고백 중에서



#

아이들은 나의 선생님이다

용기 내어 먼저 다가갈 줄 알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줄 알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줄 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고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알고

만남과 헤어짐에 미련을 두지 않을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서조차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

#

언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언어가 통한다고 다 이해할 수는 없듯이

마음이 통한다고 다 알 수는 없다

깊어지려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

나이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니까

서로 좋아하는 숫자가 다르듯이

서로 나이가 다를 뿐이니까



#

내 마음은 하나인데

어떻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내 마음은 하나인데

어떻게 몇 개로 나누어 쓸 수 있을까

내 마음은 하나인데

어떻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길 수 있을까

내 마음은 하나인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까

#

관계에 대한 모든 고민의 열쇠는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사람의 마음 말고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A woman with dark hair, wearing a black long-sleeved shirt and dark pants, is sitting on a green grassy field. She is surrounded by a group of children, mostly boys, who are wearing white polo shirts with blue stripes on the sleeves and blue pants. Some children are sitting or crouching around her, while one boy is standing in the background. The scene is outdoors, and the lighting suggests it might be late afternoon or early morning.

요즘 내 행동이, 내 말투가 못나게 느껴질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아차’ 싶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싶다가도,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렇다,,, 나는 아직 너무 뽕족뽕족하다.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동글동글한 사람이 되고 싶
다.
뽕족뽕족한 나조차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우의 에세이

어느 것 하나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들이 많았다. 12월은 그랬다.
보고서 사진을 고르면서 수십번도 넘게 봤던 사진들이지만
볼 때 마다 즐거웠고 행복했다.
새로운 만남도 있었고, 새로운 경험도 많았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이별도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렇게 PPT가 170여장이 되었다.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순간들이었고 추억들이었다.
일주일 내내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에 들었다. 때로는 해가 뜰 때 까지 사진을 고르고 보고서를 만들었다.
깨있었지만 사진을 보며 되새김질 하다 보면 그 지난 시간들을 꿈꾸는 듯 했다.
잊지 못할 꿈만 같은 추억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Hẹn gặp lại